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May 29

• 고린도전서 1:4, 9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 권위나 영향력도 미미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교회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고전 12:12).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고전 1:9). 하나님이 망가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당 짓는 일, 음행, 우상 숭배, 영적 교만, 비방 가운데서도 주님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스캇 솔즈).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교차합니다. 오르막길, 즉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져 미미한, 그러나 분명 거기 있었던 생명에 다시금 불꽃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부흥도 패배감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뒤덮인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행 1장). 우리가 교회입니다(We are church).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참 소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 ① 교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 ② 몸 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로 붙어 있습니까?